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 고정하. 야고보 916-212-3747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지혜서 6:12-16	제2독서	테살1서 4:13-18	복음	마태오 25:1-13
--------	------	-------------	------	--------------	----	-------------

◎말씀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삶>

오늘 복음은 혼인 잔치를 전제로 한, 열 처녀의 비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오는 혼인 잔치를 여러 차례 다루는데, 이 단락에서만 열 처녀가 언급됩니다. 처녀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데, 신랑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나누어집니다. 이 비유에서 '등'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명시되지 않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가르침에서는 착한 행실로 나오고(5, 13-16), 아우구스티누스도 선행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잔의 빛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기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리킨다고 여깁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등'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등'을 계속 밝힐 기름도 함께 준비하는 자세를 일컫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올 재림까지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만이 슬기로운 사람들임을 일러 줍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겠습니까? 아마도 현재에 더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면 준비된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잔치에 초대된 사람의 마음을 더해야했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은 옷을 입어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신랑이 언제 올지 확실치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기름을 더 준비해 갔다면 달린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현실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잘 대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살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로 인해 조금 더 행복해 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런 삶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신랑을 마중 나갈 때 행복이라는 등뿐만 아니라 이웃의 행복이라는 기름도 함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 14일(화)	연중 제32주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4,350.00 \$ 1,361.00
11월 15일(수)	연중 제32주간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성 소 후 원 사 회 복 지	\$ 262.00 \$ 263.00
11월 16일(목)	연중 제32주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성 물 방 원 캠페인	\$ 44.00 \$ 0.00
11월 17일(금)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기념일	오후 7시 30분	사 제 관 건 축 기 타 수 입	\$ 500.00 \$ 150.00
11월 18일(토)	연중 제32주간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합 계	\$ 6,430.00
11월 19일(일)	연중 제33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1명 성인: 206명

교무금봉헌자
 정진욱, 백정심, 박재례, 임창순, 김영숙(11-12월) 이정규(10-12월) 조영진(8-12월) 장원석(1-12월)
 임원호, 장신자(10-11월) 김병길, 자동순(9-10월) 류승교, 최이주, 이원근, 안기창(10월) 윤재경
 허윤정, 김채홍, 김운태, 전정옥, 김상돈, 안강순, 이재성, 지복원, 전기례, 허용희, 안선미(11월)
 윤영자, 남필례(12월)

◎신앙생활(가정의 새신;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조상제사

천주교회에서는 조상제사를 문화적 미신이나
우상숭배가 아니라 문화적 미풍 양속으로 허용한
다. 한국 천주교회의 첫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
은 조상제사 문제가 직접 발단이 돼 순교한 이들
이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날 조상제사를 조상에
게 효성을 표하는 미풍양속으로 허용하고 있다.

「천주실의」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마테
오 리치로 대표되는 예수회 회원들은 중국의 유
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천주교를 전했
다. 그래서 예수회원들은 조상제사를 조상에게
효성을 바치는 미풍양속으로 보았으나 프란치스
코회와 도미니코회 선교사들은 조상제사를 미신
행위로 보았다. 선교사들 간의 이런 견해 차이로
이른바 '제사 논쟁'이 시작된다. 약 100년 동안
계속되던 제사논쟁은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
의 교황령과 1742년 교황 베네딕토 14세의 교황
령으로 일단락된다. 이 두 교황의 교황령들은 조
상제사를 미신행위로 보고 엄하게 금했다. 교황
청의 이런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1790년 북경을 통해서였다. 유교 문화가 지배하
고 있던 당시 조선 사회에서 제사를 엄격히 금하
는 천주교의 가르침은 이제 갓 천주교에 귀의
한 신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천주교를 떠나기도 했다. 이때 전라도 진
산(현재 충남 금산군)에 사는 윤지충(바오로,
1759~1791)이라는 열심한 신자가 있었는데 그는
조상제사를 금하는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여 집에
모시고 있던 신주를 불태워 버렸다. 그런 가운데
1971년 5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외사촌
형 권상연(야고보, 1751~1791)과 상의해 전통 제
례 대신에 천주교식 장례를 치렀다. 이게 화근이
돼 이 두 사람은 전주 풍남문 밖(현재 전주 전통
성당 자리)에서 참수 당했다. 이들이 한국 천주
교회 첫 순교자들이다.

조상제사 금지에 관한 교황청 가르침이 바뀐
것은 20세기에 와서다. 교황 비오 12세가 1939년
'중국 의식(儀式)에 관한 훈령'을 통해 조상제사
에 대해 관용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200년 전과
달리 조상제사가 미신이나 우상숭배가 아니라 사
회 문화적 풍속이라고 전향적으로 해석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서 한국 천주교회는 시신이나 무
덤, 죽은 이의 사진(영정)이나 이름이 적힌 위패
앞에서는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리는
행위 등은 허용했다. 그러나 축문을 읽거나 합문
(闔門:조상의 훈령이 음식을 드는 동안 병풍으로
가리거나 문을 닫는 행위)하는 것은 금했다. 또
위패에 '신위' 또는 '신주'라는 글씨도 쓰지 못
하도록 했다. 참된 신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추석이나 설 명절에 합동 위령미사
를 거행할 때 신자들이 모두 나와서 분향을 하도
록 하는 본당들이 많다. 바로 이 교회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상 제사를
드리더라도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위령기도를 바
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고유한 전통이어서 교회
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 윤안나/황애다/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안나
백정심. 막달레나/전기례. 베레나/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추소연. 세실리아/엄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서향자. 글라라/김초지. 마리아
김미숙. 모니카/황순이. 마리아/최이주. 베아타
신용경. 그레고리오/엄모니카/이규청. 제노비아
배미성. 오티리아/박모란. 글라라/김광진. 요한
김영자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세상을 떠난 모든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을 위하여	셋별 Pr.			

◎위령성월◎
당신은 홀로 모든 불의와 죽음을 체험하시고도
당신 사랑한다는 한 마디 말로 모두 용서해 주시기에
죽은 이들이 당신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죽은 이와 우리, 당신의 약속으로 서로 위로하게 하소서.
(마종기 노렌조. 시인, 의사/최창원 니콜라오. 화가)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신세계여행사</p> <p>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메리서부동산·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p> <p>7803 Laguna Boulevard suite 200, Elk Grove CA95758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p> <p>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916)860-3873</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David's TV & Computer Repair</p> <p>6743 Fair Oaks Blvd. Carmichael,CA 95608 M-F; 9am-5:30pm Sat;10am-1pm 데이빗 김 (916)331-4515 www.davidtvrepair.com</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p> <p>~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ad Credit? Call For Free Credit Titan Credit</p> <p>1911 Douglas Blvd. Suite 85-416 Roseville CA 95661 Larry Chiarella,Esq (916)709-7777 rarry@titancredit.com</p>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Law Office of Daniel S. Lee</p> <p>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 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막달레나) danieelaw@gmail.com (916) 922-0107</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